

선어록 해제 47 한국선과 선어록 18

십현담요해(十玄談要解)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6>

탐진치 벗어나야 진짜 출가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출가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찌 노승과 같은 사람을 보겠는가?”

問 如何是出家
師云 爭得見老僧

출가는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마음에서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출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머리를 깎고 염의(染衣)는 입었으나 마음에서 삼독과 번뇌가 여전히 치성하고 있고 그림이 있다는 번뇌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아직 진정한 출가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출가를 평범한 일처럼 말하고 있다. 즉, “출가란 다만 집을 떠나 나와 같은 노인을 보는 것일 뿐이야”라는 뜻으로 말했다. 출가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든 행복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깨달음을 얻고 번뇌를 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출가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출가자이든 출가하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해야 할 일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불타와 조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인가?”
조주 스님이 말했다.
“누락된 것이 없는 것이니라.”

問 佛祖不斷處如何

師云 無遺漏

부처님이 불법을 전한 이후 2500여 년이 지났고, 유신론을 믿는 종교가 세계적으로 크게 전파됐지만, 지금까지 불법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조사에서 조사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어쩌서 그러한가? 불법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원래 누락된 곳이 없고 끊어진 곳도 없다.

깨달은 자 만이 깨달음 안다 사는 것과 달리 깨달음은 체험

때문에 사람이 있는 이상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부처도 있고 불법도 있게 마련이다.

학승이 물었다.
“근원(本源)에 대해 노스님께서 지시하여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근원에는 병(病)이 없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깨달음(了處)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깨달은 사람이 안다.”
학승이 말했다.
“그러할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 줘봐.”

問 本源請師指示
師云 本源無病
云了處如何
師云 了人知
云與麼時如何
師云 與我安名字著

근원은 만법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그곳은 형체가 없고 이름도 없고 냄새도 없다. 그곳은 마치 허공과 같이 텅 비어있지만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온다. 그곳은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다. 따라서 병(病)도 없다. 그곳은 원래 무병(無病)이고 고요하고 밝고 쾌활한 기상만 있다. 사람에게 그 근원이 있다.

무엇이 깨달음인가? 그것은 깨달은 자만이 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경계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아는 것과 깨달음은 다르다. 아는 자는 가법이 알지만 깨달은 자는 깊게 체험한다. 아울러 매사 답답하다.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정신세계는 어떠한가? 이름이 없고 형체가 없는 그 곳에 당도한 자는 사람이 거듭 새로 태어난 것과 같다. 세상이 한 없이 고요하고, 시간이 없고, 더럽고 깨끗함도 없으며, 늘어나고 줄어들어도 없다. 사람들은 이미 구원되어있고 불국토가 이미 완성되어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붙여도 좋을 정도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시습의 불교사상을 담은 책

조선조 중기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서울 성균관의 북쪽에 해당하는 반곡리에서 태어났다. 21세 때 삼각산 중흥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단종의 폐위 소식을 접하고는 출가했다. 23세 무렵에 경주지방을 지나는 도중에 오도(悟道)했다. 법화경의 역경에 동참하고, 34세 이후 금오산에 6년 동안 거처한 인연으로 이후 《금오신화》라는 소설집을 엮었다. 이후 37세 무렵에는 수락산에서 10여 년 동안 은거했다. 이후로 《연경별전(蓮經別傳)》, 《화엄석제(華嚴석제)》, 《일승법계도주병서(一乘法界圖註并序)》(42세), 《십현담요해(十玄談要解)》(41세) 등을 저술했다. 57세 때 삼각산 중흥사에 들어갔고, 이후 충청도 홍산 무량사에서 병석에 누워 59세(1493) 봄날 입적했다. 김시습은 스스로 설잠(雪岑)이라는 법명을 사용했다. 그밖에 매월당(梅月堂)·청한자(淸寒子)·동봉(東峰)·벽산정은(碧山淸隱)·취세옹(贅世翁)으로 불렸다.

《연경별전》의 서문에서 김시습은 《법화경》에 대한 글자상의 이해를 넘어서 선적인 이해를 중시했다. 특히 연년시호년(年年是好年)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의 일 상성을 강조한 조사선의 가풍을 노래하기도 했다. 나아가서 《화엄경》에 대한 안목으로는 《일승화엄법계도주》와 《화엄석제》를 통해 의상화엄의 전통을 선적인 입장으로 승화시켜 구현했다. 이것은 낙산사에서 《화엄경》에 대한 강의를 들은 이후로부터 그의 심정을 시로 토로하면서 《화엄경》을 제일의 가르침으로 찬탄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시습의 불교사상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선의 조동종 가풍을 유려한 시풍으로 풀어낸 《십현담요해》이다. 《십현담요해》는 동안상찰의 《십현담》에 대한 일종의 주석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십현담》의 저자 동안상찰의 법계는 육조혜능의 제자 청원행사 - 석두화전 - 약산유엄 - 도오원지 - 석상경제 - 구봉도건 - 동안상찰로 이어진다. 동안상찰 선사는 많은 신라승들과 함께 교류가 깊었던 인물로서 소위 조동가풍의 종지에 대해 7언율시의 형태로 종문의 종지와 수행남자의 실천강령을 노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주석서인 김시습의 《십현담요해》는 《십현담》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달리 《십현담가명법어》, 《십현담발논어》, 《십현담주석》, 《십현담집취》 등 역대의 주석서들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하다.

《십현담》은 조동종의 개조인 동산양계의 동산오위(洞山五位)를 실천적인 측면에서 열 가지의 조항에 대해 율시의 형태로 확대 해석한 것이다. 곧 심인(心印)·조의(祖意)·현기(玄機)·진이(塵異)·불교(佛敎)·환향곡(還鄉曲)·파환향곡(破還鄉曲)·회기(回機)·전위(轉位)·정위전(正位前)이다. 이 가운데 앞의 5항목은 조동종문의 종지를 현창한 것이라며, 뒤의 5항목은 수행남자들이 주의해야 할 실천목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대시대에 법안문의(885~958)이 주석을 가하여 《십현담청량상주(十玄談淸涼尚註)》를 찬술했다. 이것이 해동에서 전래되어 설잠(1435~1493)에 의해 다시 《십현담요해》로 찬술된 것은 1475년 41세 때이다. 설잠은 용어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논했다. 곧 심인(心印)·조의(祖意)·현기(玄機)·진이(塵異)·연교(演敎)·달본(達本)·환원(還源)·회기(廻機)·전위(轉位)·일색(一色) 등이다. 《십현담요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십현담요해서(十玄談要解序) : 1475 청한자 필주 설잠이 폭전산에서 주를 붙임.
○ 오패원류도(五派源流圖) : 오가의 종파는 모두 방편이라 함.
○ 십현담요해(十玄談要解) : 청량문적이 동안상찰의 《십현담》에 붙인 주에 다시 조목조목 열경설잡이 해석을 가함.
○ 부록으로 ‘조주삼문趙州三門’ 곧 [문수면목(文殊面目)]·[관음묘창(觀音妙昌)]·[보현묘용(普賢妙用)] 등과 [십현담음의(十玄談音義)]를 수록함.

십현(十玄)에서 현(玄)이란 그 뜻이 현오(玄奧)하고 현미(玄微)하며 현묘(玄妙)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심은 열 개의 계승으로써 그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십이라 한 것이다. 십현이란 화엄종에서 자세하게 설하고 있는 것으로 이른바 십현연기 모두 무애자재하고 일타즉입하여 영원히 삼승의 영역을 초월하고 일승의 구역을 나타냈다. 또한 십현연기의 십현이라는 용어를 취해 오위(五位)의 종취를 표현하려 했다.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용어는 어느 하나의 의미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것은 삼승(三乘)이나 일승(一乘)이나 무승(無乘)이나 간에 구분이 없이 평등하기 때문이다.

설잠의 《십현담요해》는 동산오위에 근거한 동안상찰의 《십현담》이 지니고 있는 오위의 사상을 이어받아 전했다는데서 그 첫 번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입장을 통해서 기존의 《오위송(五位頌)》을 하나로 엮어 거기에 주석을 가하고 《조동오위군신도(曹洞五位君臣圖)》에서처럼 도해를 결들인 점은 당시 조동선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오위의 실천적인 측면을 긍정하여 파악하려 한 점을 엿볼 수가 있었다. 조동선법 특히 오위사상에 대한 심장의 노력은 자칫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입장에만 치우치기 쉬운 동산과 조산으로 대표되는 조동교의 몇 가지 기관(機關)에 대해 실천적인 선수위의 역동성을 모색했다.

김희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조동종의 선풍을 유려한 시풍으로 풀어내 동안상찰 <십현담>에 대한 주석서 성격 지녀

운상민의 서화산책 ⑤ 심외무법(心外無法)



마음 밖에는 법이 없다

通玄峯頂 不是人間 心外無法 滿目青山(통현봉정 불시인간 심외무법 만목청산)
통현봉 꼭대기는 인간세상이 아닌데, 마음 밖에는 법이 없으니 눈에 가득 온통 푸른 산이네. - 천태대소(天台臺謠)

通: 통할 통
峯: 봉우리 봉
頂: 정수리 정
滿: 잘 만

청계무심
우미법외
춘일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빛 살림 정골요법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척추교정, 무중력 감압치료, 수술, 경락, 지압 등 대중치료를 오래도록 받았어도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책을 읽고 오셔서 한번만 체험해보시면 대변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신의 상쾌함을 곧바로 몸이 느끼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운동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어깨통증, 오십견, 협착증, 좌골신경통, 목 뻣뻣, 수족냉증, 갑상선, 안면마비, 흰다리, 암, 교통사고 후유증, 우울증, 불면증, 당뇨, 아토피, 부정맥, 류마치스, 협심증, 두통, 심근경색증, 생리통, 발기부전, 전립선, 체온저하증, 골병으로 인한 통증, 적취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꽂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 요법. 자궁근종, 암수술전·후, 항암치료 마치고신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디톡스로 몸속을 대청소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썩~ 뽑아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 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틀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 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 수록!

NAVER 정골본가 검색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도서구입안내
빛살림 요법 강좌세트(2권), 책값 20,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농협계좌 : 농협 : 751017-52-024285 김순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책신청 : 054)637-9810